휠체어 타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

연극을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는
극단 휠

연극을 통해 장애인의 목소리를 내며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극단이 있다. 바로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 휠'이다. 극단 휠은 2001년 설립한 이후 매년 1회씩 꾸준히 창작극으로 정기공연을 해왔고, 2005년부터는 연극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연극 교육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연극을 접할 기회와 교육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들의 연습실을 연극평론가 김소연이 찾아가봤다. 마침, 연습실에서는 일상 훈련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글 **김소연** 연극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우리는 막 싸워요. 엄청 싸웠어요. 지금은 덜 싸우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아름이가 한 이야기 들었지? 그거에 대해서 종민이는 어떤 생각했는지 얘기해봐."

"……."

"종민이 얘기해보라니까. 아름이 얘기 들었지? 얘기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얘기해봐."

"……."

"정말 들었어? 안 들은 거 아냐? 들었으면 자기 생각 얘기해보라고."

"……."

"왜 얘기를 못해. 종민이, 아름이 얘기 안 들은 것 같은데?"

극단 휠의 단원들에게 연습과정은 공연을 위한 창작 활동일 뿐 아니라, 일을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는 사회생활의 훈련 과정이기도 하다.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들-었-어-요. 근-데, 아름-이-가 발-음-도 안 좋-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연습실 한편에 둥글게 모여 앉은 극단 휠 단원들.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 대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 중이다. 각자 대본의 한 부분씩을 놓고 분석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발표하고 있다. 극단 휠의 상임연출가인 김지원 씨가 질문을 던져 발표를 돕는다. 막 발표를 끝낸 한아름 씨는 격한 신체훈련이라도 마친 것처럼 얼굴이 땀범벅이다. 한아름 씨가 발표를 마치고 나자 이어서 연출자가 호종민 씨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호종민 씨는 아름 씨의 발음이 안 좋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대답한다.

"못 알아듣겠다고? 종민이 몇 급이야? 그래 1급이지. 아름이는 3급이잖아. 그런데 아름이한테 발음 나쁘다고 하면 어떻게 해? 연극에서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데…. 무대에서는 더더욱 다른 사람 대사 잘 들어야 하잖아."

연습실 한켠에서 보고 있자니 조마조마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프로 극단이건 아마추어 동아리건, 연출자와 배우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극중 인물을 끄집어내기 위한 연출자의 자극이나 전체를 조율하는 작업이 때때로 공격이나 통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습과정에서 배우는 스스로를 드러내야 하기에 매우 예민한 상태이다보니, 작품에 나타난 갈등 이상으로 연습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겪기도 한다. 보는 이의 조마조마함과는 달리, 연출자도 배우들도 스스럼이 없다.

"다음은 정화. 자, 준비한 것 꺼내봐."

박정화 씨에게도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하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그려야 할지…. 그림은 도저히 못 그리겠고, 지점토로 만들까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럼 지점토로 만들어보지. 왜 고민만 해."

정화 씨 뒤편에 앉아 듣고 있자니, 숙제를 안 한 아이의 변명 같다. 다른 단원과 달리 정화 씨는 비장애 단원이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정화 씨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다른 단원들이 중증장애인임을 금방 알아봤던 것과는 달리, 시각장애는 뒷모습으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연습이 끝나고 극단 휠의 단장인 송정아 씨에게 연습과정에서 겪는 갈등에 대해 물었다. 연출자와 배우의 권력관계를 생각할 때, 비장애인 연출자와 장애인 배우의 연습과정은 훨씬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는 막 싸워요. 엄청 싸웠어요. 지금은 덜 싸우는 거예요."

뇌병변 2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송정아 단장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서로 한계를 미리 정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열어둡니다."

극단의 상임연출로 정기공연 연출과 일상 훈련을 맡고 있는 김지원 연출의 대답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훈련 프로그램이나 공연 연출 등에서 비장애인 연극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극단 휠과 작업하면서 저도 공부 엄청 해요. 오늘은 드라마를 그림이나 이미지로 분석하는 훈련을 했는데, 대사 암기 등에서 비장애인들에 비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훈련방법이 필요해서 마련한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스스럼없이 대하죠."

송정아 단장의 말에 따르면, 극단 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단원들에게는 창작활동과 더불어 사회생활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처음 활동을 시작하는 단원들 중에는 공동생활에서 서로 일을 나누고, 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에 서툰 사람이 많죠. 창작활동 못지않게 이러한 사회생활의 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대 위의 강렬한 해방감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극단 휠은 2001년 연극모임으로 출발했다. 그저 연극이 좋아서, 그리고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만든 소박한 모임이었다. 송정아 단장은 첫모임부터 참여한 창단 멤버다.

"예전에 교회에서 연극을 올린 적이 있어요. 연습은 그냥 했는데, 막상 공연 시작 직전에 그렇게 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무대 위에서 말도 안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그렇게 긴장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무대에 오르고나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첫경험은 강렬하기 마련이다. 송정아 단장에게도 그러했다.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려웠지만 막상 무대 위에 서니 해방감이 느껴지더라는 경험은, 아마도 연극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리라. 그리고 휠 단원들에게 그 해방감은 자존감의 출발이기도 하다.

"나도 그렇고, 단원들도 연극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삶에 대한 적극적 태도만이 아니라 언어 전달력이나 발음, 표현력 등 언어장애가 많이 좋아져요. 무엇보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주는 자신감도 크고요. 스스로 '연극인'이고 '배우'라는 사회적 역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송정아 단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술치료에 대한 비판이 떠올랐다. 최근 장애인, 수형수,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 등을 비롯해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을 상대로 예술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치료 대상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비정상을 '치료한다'는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면에서 예술치료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송정아 단장은 장애인들의 예술활동이 단순한 치료활동으로 환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를 아예 배제한 예술활동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면 비장애인들의 창작활동에도 치료라 할 수 있는 체험이 존재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부터 극단 휠이 운영하고 있는 연극아카데미는 창작 중심의 극단 활동과는 별개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연극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극단이 전문적인 연극창작 집단이라면, 연극아카데미는 말 그대로 교육 프로그램인 것이다. 대중강좌이기도 한 연극아카데미는 장애인 연극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계획도 세우고 있다. 물론 극단 활동과 연극아카데미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 중에는 연극아카데미 출신들도 있다.

극단 휠의 창단멤버인 송정아 단장. 예술가이자 장애인 운동가이기도 한 그는 연극을 통해 장애인의 삶을 밝고 재미있게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장애인들이 연극을 접하고 싶어도 접할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전무한 것이 현실이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애인'

단원들의 면면을 보면 장애인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갈구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다. 편마비 장애를 겪고 있는 원유민 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극단 활동을 하고 있다. 시각장애 1급인 박정화 씨는 2003년 친구 따라 극단에 왔다가 단원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모두들 극단 활동을 통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예술활동에 대한 욕구를 풀어내고 있다.

어우름, 춤추는 허리(장애여성 공감) 등 다른 장애인 극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휠이 눈에 띄는 것은, 이들이 창단 이후 꾸준히 매년 1회씩 정기공연을 해왔다는 점 때문이다. 올 5월에는 〈사랑〉이라는 뮤지컬 공연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휠의 작품들은 대본부터 극단에서 직접 창작한 것들이다. 꽤 인지도 있는 연출자이자 극작가인 윤정환도 휠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상임연출 김지원 씨에 따르면 "윤정환 씨가 직접 쓰거나 외부에서 대본을 받기도 하지만, 연습과정에서 각색 이상의 재창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물론 공연을 할 때 비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서기도 하고, 윤정환 씨나 김지원 상임연출가처럼 비장애인도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단원의 대다수는 중증장애인이다. 혹 이러한 단원구성이 극단 활동의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닐까. 비장애인과의 공동작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직은 아니에요.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예술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의 활동이 워낙 미미하고, 장애인의 작업공간이 좁다보니, 우선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작업이 서로에게 발전

적 영향을 미치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요."
송정아 단장은 지금은 장애인 예술활동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극단의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전문극단을 향한 한걸음 한걸음의 노력이라 할 것이다. 현재 극단 휠은 주2회 일상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신들만의 공간은 모든 극단들이 꿈꾸는 것이지만, 극단 휠에게 이는 더욱 절실하다. 이들은 현재 서소문에 있는 세계문화오픈센터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여러 팀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보니 많은 것을 욕심낼 수 없다. 이동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새로 구하기도 쉽지 않다. 연습 공간뿐 아니라 공연장을 섭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대학로 소극장에서도 공연해봤지만 계단이 많거나 공간이 좁다는 점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안 되어 있어서, 배우들이 극장에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장애인 극단들의 전용극장 이야기는 너무나 멀리 있어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 정도이다.

'전위'가 아닌, 우리들의 '일상'을

최근 장애인 예술활동이 재활 치료 등의 개념을 넘어, 적극적인 창작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2005년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 영국의 신체극단 'DV8'의 〈Just for Show〉에서는 뚱뚱한 이, 다리가 짧은 이, 그런가 하면 다리가 없는 이도 무대 위에 올라 춤을 추며 종횡한다. '무용수의 몸'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며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에서처럼 장애인들을 비정상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유의미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장애인 예술활동에서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보면, 극단 휠의 작품은 관습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극단 휠의 작품 연보를 보면, 대사 위주로 전개되는 드라마가 주를 이룬다. 앞서 잠깐 지켜본 훈련 프로그램도 드라마 분석, 대사 분석 훈련이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공연한 뮤지컬 〈사랑〉은 극단 휠로서는 새로운 시도였던 셈인데, 이 작품도 탄탄한 '드라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송정아 단장은 장애인 예술활동에서 새로운 미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선이나, 기존 예술의 관습을 깨뜨리는 아방가르드적인 장애인 예술활동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해 '새로운 몸'의 접근은 자칫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로 신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기도 하다고 지적한다.

"처음 우리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장애인 행사'에 참석한다는 의무감으로 객석에 앉아요. 그런데 공연이 끝나면 '재미있다' '감동적이다'라고 해요. 물론 아직 우리 공연이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든 연극이 관객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는 것은,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연극을 연민이나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장 경계해요. 이번에 〈사랑〉을 뮤지컬로 만든 것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도 밝고 재미있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연극으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연극은 매력적이죠."

패기만만 극단 휠, 훨훨 날아라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송정아 단장은 자신은 예술가이기에 앞서 장애인 운동가라는 말을 했다. 장애인들의 삶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받아들이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에 연극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극단 휠이 전문극단으로서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송정아 단장은 말한다.

최근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해서 문화접근권과 같은 인권이나 사회권의 관점을 벗어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극단 휠을 만나면서 지금 한국에서 막 시작되고 있는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추상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일본의 '민들레의 집'이나 영국의 '치킨쉐드'(Chickenshed)와 같은 장애인 예술활동이 이제 막 소개되고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자칫 전혀 다른 사회환경에 처한 국내 장애인 예술활동의 준거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정아 단장과 극단 휠의 단원들을 만나고 돌아서서 남는 느낌은, 이러저러한 장애인 예술활동에 대한 논의를 떠나 막 세상에 출사표를 던진, 옹골차고 패기만만한 신생극단 같다는 것이다. 아직 스스로가 딛고 있는 현실은 부족할지라도 세상과 예술에 대한 패기만만한 꿈과 열정에서 거침없는 젊음이 느껴졌다.

글쓴이 **김소연**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관련 비평을 해왔으며, 문화정책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간 〈민족예술〉 편집위원을 거쳐, 현재 〈컬쳐뉴스〉의 편집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